

연중 제18주일

기도서 404 면(A해)
 제1독서 : 이 사 55, 1-3
 제2독서 : 로 마 8, 35, 37-39
 복 음 : 마 태 14, 13-21

숲 정 이

발행처 전주교전주교구
 편집인 홍보국
 인쇄관 리국

편집실 : 전주시서노송동560~6
 전주 교구청
 ☎ 0041 • 0042 • 0043

□강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한 기 호 신부

세상은 저마다 뭔가 얻고자 하는 갈망 속에서 발돋움하는 사람들로 가득하다. 부질없는 욕망을 채우려 기를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루의 양식을 얻기 위해 중노동에 애쓰는 사람들도 있다.

오늘 복음의 말씀은 우리 모두를 그 옛날 팔레스티나 호숫가 언덕에 모여 있는 맑은 마음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우리 모두를 그곳에 초대하신다. 군중이 그토록 찾고자 했던 것이 주님의 진리요, 사랑, 정의의 말씀이었기에 언제나 풍요로우신 그분께서는 따지거나 계산하지 않고 굶주린 군중들에게 영적인 생명은 물론 일용할 양식까지도 베풀어 주신 것이다. 역시 빈손 빈마음 뿐인 자세로 주님께 가까이 다가갈 때 그분의 가슴은 뜨거운 사랑의 불꽃을 작고 가난한 우리 마음에 당겨주신다.

해가 저물어 제자들의 생각이 군중들이 먹을 것을 걱정하기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는 그들을 보낼 것 없이 「먹을 것을 너희들이 주어라」고 하셨다. 이때 제자들의 마음 속에는 우리가 가진 것으로 몇 사람이나 먹이시겠다는 것인가 생각을 하면서도 주께서 하라시는 대로 했을 때 그 결과는 오천 명이나 배불리 먹고 남게 된 것이다.

복음을 통해 우리가 마음 깊이 새겨둘 일은 우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즉 가지고 있는 작은 것(삶)을 함께 나눌 때 나머지는 주께서 도와 주신다는 사실이다.

미사의 핵심은 예수께서 남을 위해 당신 목숨까지 바치신 것을 기념하면서 우리 삶을 함께 나누며 나누는 삶을 주께 봉헌하는 데 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을 때 미사성체를 통해 그 부서지고 먹히워지시는 자비와 사랑자체이신 성체안의 주님을 느끼지 못하고 만다. 우리의 마음이 닫혀져 있기에 우리의 삶을 함께 나누지 못하며, 함께 나누지 못하기에 십자가를 통해 바치신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고 마는 것이다.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빵을 어디서 구해오겠습니까?」 「너희가 가진 먹을 것을 주어라」

(삼례성당 주임신부)



노동 관계법은 개정 되어야 한다!

한국 천주교 정의의 평화 위원회는 현행 노동관계법의 반민주적 성격이 불행한 노동현실을 낳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라 판단하고, 노동관계법 개정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사실 이는 너무나 절실하고도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때늦은 감도 없지 않다. 따라서 우리 모두 이 운동에 적극 동참하자. 그리하여 자주적이고 제도적인 노동운동의 보장으로 우리 사회 전체의 건전한 발전에 한 몫을 다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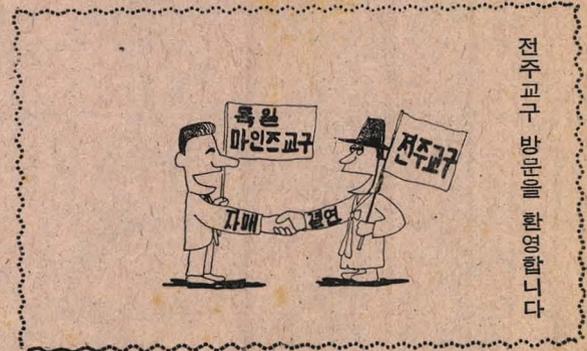
일찌기 본보는 3월 11일자 소리에서 「근로자의 날에」라는 제목으로 노동관계법의 개정을 주장하며, 근로자들에게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나누자고 호소한 바 있다. 다시 한번 그 소리를 들어보자.

헌법은 「근로조건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30조)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근로 기준법은 근로시간에 대한 규정(42조)에서 상당한 모순을 스스로 범하고 있다. 내용인즉 하루에 8시간, 일 주일에 48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근로시간이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으면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어떤 날은 8시간이 넘게, 또 어떤 주간에는 48시간이 넘게 일을 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조항은 지난 1980년 12월 31일 (※註 국가보위 입법회의에서) 신설되었다. 인간이 기계가 아닌데 어떻게 그리되어도 된다는 말인가! 거기다가 합의만 되면 연장 근로수당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이 조항이 신설되기 이전에는 기준 시간 이상의 근로에는 연장 근로수당이, 그리고 작업량 부족으로 쉴 때는 휴업수당이 주어졌다. 이러한 조항들은 빨리 개정 되어야 한다.

—한국 근로자의 주당 노동시간(1982년도)이 53.7시간으로 세계에서 가장 길다는 사실이나 알자.

(국제 노동기구 <ILO>통계)

숲 정 이 산책



“현행 노동관계법은 개정되어야 한다.”

□전례 상식

1. 우리나라의 노동 현실

한국 성인 공경에 관하여

우리나라의 임금 노동자는 800만으로 그 부양가족을 합치면 우리나라 총 인구의 70%에 달한다. 이렇듯 노동계층은 절대다수를 차지하며 국민경제나 민중사회 발전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처노임을 정책수단으로 하는 수출 주도형의 외형적 성장전략으로 인하여, 성장의 그늘에서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다.

지난 81년의 통계에 의하면 월 10만원 이하의 저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59%에 해당하는 438만명에 이르고 있다. 더군다나 월 10만원도 못받고 있는 노동자들은 대부분이 일당 3,000원 미만의 하루별이 인생인지라 항상 하루별이 직장마저 잃을까 불안에 떨고 있다. 한편 당국은 80년 이래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아래 임금억제 정책을 실시하고 있어서 노동계층은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으로 더욱 어려운 생활을 강요당하고 있다.

그리고 국제노동기구의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노동자는 세계에서 가장 긴 주당 53.7시간(제조업 부문) 일하고 있다. 또한 산업재해율도 세계에서 가장 높아 1979~1983년 동안의 5년간에 64여만명의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생명을 잃거나 부상을 당했으며, 지난 82년의 경우 전체 노동자의 4%에 해당하는 노동자들이 8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에서 사망에 이르는 산업재해를 입었다.

대외의존형 경제구조로 인하여 세계 경기가 침체되면 우리나라 노동자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최근 몇년간의 실정이다. 그러나 실업자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이고 상설적인 대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많은 실업자들은 당장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다. 특히 노동자들이 해고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제도적 수단을 갖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80년 이후의 대량 해고사태와 최근의 취업금지 대상자명단(블랙리스트)에 의한 부당해고와 재취업 금지조치는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하였다. 또한 82년에는 취업노동자 중 8만 9천명이 해고되어 생계수단을 잃었다.

이와 같이 열악한 노동조건은 더 이상 노동을 신성하고 고귀한 것으로 머물러 있게 하지 않고, 오히려 고통스러운 것으로 만들고 있다. 또한 이렇게 불행한 현실속에서 인간노동에 대한 존엄성이 침해되는 결과로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소외와 가난 속에 갇혀 인간으로서 ‘더욱 더 인간답게’ 삶을 이룰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한국 성인 공경에 관하여 한국 주교회의 상임위원회의 결정은 다음과 같다.

- 1) 9월 26일 북자축일은 폐지한다.
- 2) 9월 20일에 “성 안드레아 김 대건과 바오로 정 하상과 동료 순교자” 대축일을 지내며, 가까운 주일에 외부 행사를 지낸다.
- 3) 9월은 계속 “순교자 성월”로 지내며 한국 성인 성녀들을 공경하는 동시에 아직 복자나 성인품에 오르지 못하신 순교자들의 시복 시성을 위하여 기도한다.
- 4) “성 안드레아 김 대건 신부”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 대축일은 계속 7월 5일로 지내기로 하고, 가까운 주일에 외부행사도 할 수 있도록 한다.
- 5) 한국 성인 성녀들의 이름을 세례 때 세례명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안드레아 김 대건” 후 “바오로 정 하상”과 같이 이름을 성과 함께 사용하든지, 유아 때 속명을 자기 이름으로 정할 때는 예컨대 “홍대건 안드레아” “김 하상 바오로” 같이 성을 빼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폭넓은 자유를 허락한다.
- 6) 호칭기도에는 “성 안드레아 김 대건과 바오로 정 하상과 동료 순교자들이여” “우리를 위하여 빌으소서” 하고, 좀 간단한 호칭이 요청되는 경우에는 “한국 순교 성인들이여” “우리를 위하여 빌으소서”라고 통일하기로 하였다.

□전주교구 성지③

되 재 성 당

대운산 줄기를 몸체로 하고 구석구석마다, 숨겨진 산삼처럼 박해를 피하여 심산 궁곡에 이룬 신자 마을이 이곳처럼 많은 곳도 전국에 없다.

고산 지방은 진산 땅의 윤 지층과 권 상연이 순교한 이후 시작된 교우 마을이 수십 개를 넘더니 지금도 고산 본당은 한 본당에 맡겨지기는 힘겨운 공소들을 가지고 있다.

되재 성당은 전후 좌우에 뻗힌 계곡마다 정부와 슬바 꼭질하며 사는 신자들이 모일 수 있는 위치였기 때문에 1894년 우도 신부는 목조 외가의 순한식 성당을 아담하게 지었다. 고래등같은 지붕을 산 위에서 바라볼 때 신자들은 역경을 헤치고 살아온 보람을 느꼈다. 한강 이남에서 최초로 세워진 전통 양식의 아름다운 성전은 불행하게도 6.25사변 때 소실하고 초라한 성당이 늙은 세월을 지켜주고 있다.

마기환 안과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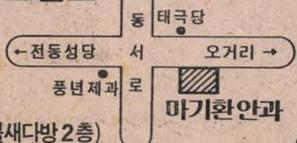
부설 : 새한콘택트렌즈

원장 안과전문의 마기환

한남희(비리시타)

TEL. 75-2203

(시집가는날, 태극당건너편 불새대방2층)



영진비디오

결혼·희갑·각종행사
촬영 전문
비디오 테이프 판매 교환
카세트 테이프·레코더 판매
전화 2-4094
채석자(글라라)
(전주백화점~한아름백화점 사이)

눈! 눈을 보호합니다
각종 수입안경대 다량확보
<도수안경 전문>
안경사 자격증 업소
제일안경원
전동성당 사거리 신호등앞
구 성모병원 앞
대표 김창록
☎ 0102

□ 교황님 말씀



노동자이신 예수님

친애하는 근로자 농민 여러분,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여러분은 교회의 한가운데 형제자매로써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노동자가 아니고 무엇이었습니까? 예수께서 처음 설교를 시작하셨을 때 사람들은 놀라서 말하기를 "저 사람은 저게 다 어디서 저런 지혜를 받았을까? 저이가 마리아의 아들 그 목수가 아닌가?"(마르 6,23) 하였읍니다.

하느님 아들이 사람이 되셔서 손수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일이란 그러니까 하느님의 창조계획 안에서도 제나름의 품위를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첫머리에서 "사람을 하느님 모습대로 지어내시되 남자와 여자로"지어 내셨다고 들읍니다. 그리고 온 천지를 그에게 맡기시면서 "자식을 낳고 번성하여 온 땅을 채우고 이를 정복하라"(창세기 1,27~28)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성으로뿐 아니라 제시를 통해서도 인간이 일로써 조물주의 창조사업에 참여한다는 것을 압니다. 인간은 그 사업을 계속하고 어떤 의미로는 자신의 일로써 노고로써 이를 완성한다고 하겠읍니다.

(1984. 5. 5. 부산 행사 강론에서)

□ '84 성소자 하계 수련회

교구 교육국에서는 성소자들이 대자연 속에서 형제애를 나누고 학사님들과의 생활 나눔을 통해서 성소관을 확립하도록 하계 수련회를 마련하고 많은 성소자들의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주 제: 세상의 빛 일 시: 84. 8. 16~18일 장 소: 교산 캠프장

대 상: 성소자 모임 회원 및 신부님 추천자

회 비: 5천원(식사대·교통비 포함)

준비물: 미사도구(성경·성가집·기도서·목주), 세면도구·필기도구·담요·여벌신·

밥공기 3개·수저·젓가락·의류(우의·수영복·여벌 옷), 전지

신청마감: 8월 6일까지(교육국으로)

집결장소: 가톨릭 센터(16일 오전 10시)

□ 수해의연금 접수 현황

8월 1일 현재 교구 사무국 사회복지부에 접수된 수해의연금은 다음과 같다. 이분들에게 감사드리며 계속해서 많은 분들의 따뜻한 관심을 기다려 본다.

35사단 신자 일동 45,900원 M.E 3차 모임 100,000원

「어린양」참간 100호 기념 글짓기 동시 특선작

교 황 님

신 혜 경 (아네스)

교황님 마음은
깨끗하고 하얀
눈 같아요.

사람들이 꺼려하는
나환자들에게
축복을 주셨죠.

교황님 마음은
보석보다
더 빛나죠.

우리들에게
희망과 사랑을
주시니까요.

교황님 손은
훌륭한
의사 선생님 손이죠.

우리들의
아픈 마음을
고쳐 주시니까요.

(전동 주일학교 5학년)

요심이 (574) 김병오



군산 태 광 약 국

☎ 1800

구시장 사거리

교우 여러분의 만성질환
및 건강상담

희 소 식

독사뱀 물린 사람 전문
치료 5대째

단시간 치료 완치할

연락처: 전주시 전미동

1가 전당리 시내버스종점

☎ 5-3544

송 준 의 (발라바)

전북의료보험조합 지정

소흥영외과의원

의학박사 소흥영(요한)

전주시 서도충동 602-21

병원 ☎ 3668

자택 ☎ 8120

대중음식점·연회석안비
대형에어콘 가동

대 건 회 관

전북은행 본점 후문앞

(구, 미가도)

☎ 6-7566

김 한 영 (안토니오)

하 정 희 (엘리사벳)



숲명동피부과의원

진료과목: 피부과, 비뇨기과, 병리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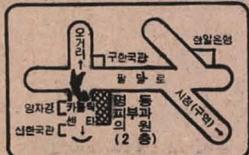
원장 전문의 최 창 기 (루까)

부설: 임상병리 검사실

임상병리사 임 윤 자,

☎ 1719, 70016 (원장실)

(구역전오거리, 팔달로동편 2층)





1. 제15차 어린이들의 모후 꾸리아: 5일 오후 2시, 장소-이리 영동동성당(이리역→성모의원에서 하차)
 2. 군총 후원회 월례미사 및 안철문 신부님 환영미사: 6일 오후 3시, 장소-센타성당(3층)
 3. 농민회 임원 연수: 7일 오전 11시~8일 정오, 집결장소-관촌공소
 4. 마인즈교구 신자단 교구 방문 일정: 5일 10시30분-중앙성당, 오후 2시-화산성당, 상지원, 이리 동정 성모회, 오후 6시-주현동성당, 6일 오후 3시30분-해성·성심학교, 천동성당, 오후 9시-수류성당, 7일 오전 10시-고산성당(천호), 8일 오전 10시-정읍성당, 오후 6시-덕진성당
- 축! 영명: 성 도미니교(8일)-장 인찬 신부님
 설 라우렌시오(10일)-박 진량·범 선배·전 대복 신부님

제 1 지구 각 본당 소식 ①

(중앙)

전화 ⑩1711~3
 주임 신부 문 정 현
 보좌 신부 나 춘 성
 사도 회장 김 인 협

1. 사도회: 금일 공식미사 후
 2. 병자방문: 화요일, 각 구역장님께 신청
 3. 꾸리아: 다음주 5일 오후 2시
 4. 설모회 정기총회: 19일
 5. 첫영성체: 15일 풍소승천대축일 10시30분 미사에
 6. 돼지저금통: 얼마나 자랐나요?
 7. 벽돌봉헌: 27,025장
- 지난주 봉헌금: 931,005원 교무금: 722,000원
 감사헌금: 서울교우 익명-1만원, 윤 칼롬바-3만원

(노송동)

신부 ⑩0969 주임 신부 김 용 태
 수·사 ⑩7032 보좌 신부 이 성 우
 사도 회장 이 철 재

1. 정성과 희생으로 새성전 건립하자: 50만원-문형주·익명, 30만원-양정숙·이승은, 20만원-신순자·문정숙, 16만원-김선득·김옥순·김학우, 12만원-임옥순·유봉래·백현석, 15만원-최가별·최낙현·안병두·한영순, 소계-3,440,000원
 누계-89,276,000원
 2. 대의원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 각 구역장님·사도회인원 빠짐없이 참석하세요
 3. 감사합니다: 학생수련회에 협조해 주신 분들께...
 4. 분당 울드레아: 오늘 저녁 8시 꾸리얼리스타들의 빠짐없는 참여 바랍니다
 5. 예수성심회 월례회: 7일 어머니미사 후 빠짐없이 참석합니다
 6. 공소 순회미사: 11일 저녁 8시, 황운리공소
 7. 차주전례: 제 3조, 차질없이 진행합니다
 8. 공소 주일학교 특별교리에 수고하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지난주 봉헌금: 371,970원 아파트: 107,900원
 교무금: 664,800원 아파트: 84,000원

(덕진)

신부(3)2182 주임 신부 김 봉 회
 전화 수녀(72)1222 보좌 신부 김 요 안
 사무(72)6259 사도 회장 양 상 열

1. 오늘의 모임: 요셉회
 2. 마인즈교구(독일) 신자 9명 본당방문 환담
 3. 유아세례 및 보례: 10일 오전 10시, 어머니미사 후
 4. 성모승천축일 영세자 특별교리: 10일~13일 밤 8시
 5. 미사시간 변경: 금주부터 새벽미사-6시(일-목), 어머니미사-(금) 10시, 학생미사-(토) 오후 5시(신설), 공소미사-저녁 8시
 6. 금주 본당청소: 청년연합회(11일 오후 3시)
 7. 다음주 모임: L.M. 꾸리아
 8. 진북유치원 특강: 13일~24일,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지난주 봉헌금: 480,170원 교무금: 1,205,000원

(복자)

사제관 75-0592 주임 신부 권 영 교
 사·수 2-5238 사도 회장 김 성 원

1. 성우회 단합대회: 오늘 공식미사 후, 남관
2. 부녀회·성가대·자모회 단합대회: 7일 오전 9시 본당 출발, 장소-고산
3. 자모회: 오늘 공식미사 후
4. 금주 성당청소: 월-사도의 모후, 토-자비의 모후
5. 차주 성당청소: 월-평화의 모후, 토-구세주의모친
6. 대학생회 임원개편: 회장-윤종선, 부회장-윤병우·최영란
7. 대학생미사: 매주 목요일, 회합-매 목 오후 6시30분

7. 금주전례: 해설-유덕열, 독서-①최재준 ②장영자
 차주전례: 해설-최정순, 독서-①정동민 ②정운주
- 지난주 봉헌금: 123,570원 교무금: 382,160원

(서학동)

신부 ⑩8307 주임 신부 김 동 준
 수녀 ⑩2276 사도 회장 김 낙 균

1. 모임: 자모회-7일 오전 10시30분, 반장님-다음주 일 공식미사 후, 성심회-13일 오후 2시
 2. 감사합니다: 중·고생 수련대회에 수고하신 여러분
 3. 차주전례: 독서-①함문권 ②김민수
- 지난주 봉헌금: 310,505원 교무금: 305,500원

(순정이)

전화 ⑩7366 주임 신부 김 종 길
 수·유 ⑩9567 사도 회장 김 수 검

1. 사도회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
 2. 성지순례(천진암·미리내): 20일, 회비-4천원 ※ 오늘까지 접수 바랍니다
 3. 신학생 후원회비: 매월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4. 사도회 전체회의: 15일 공식미사 후 사도회 임원·위원·각구역 정·부회장·단체대표
 5. 금주전례: 해설-이철수, 독서·기도-김남곤·이정숙
 차주전례: 해설-이철수, 독서·기도-김영채·이은자
- 지난주 봉헌금: 197,400원 교무금: 426,700원

(전동)

신부 ⑩6208 주임 신부 김 치 삼
 전화 사무 ⑩3222 보좌 신부 정 양 현
 수녀 ⑩8347 사도 회장 김 병 오

1. 사도회: 공식미사 후
 2. 유아세례: 학생미사 후
 3. 자모회·장우회: 다음주 공식미사 후
 4. 주일학교 하계교리에 협조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자모회·성화회·김탁희·강준석·유지현·이종두·김영은·정창희·이행남·고수창·이양자·은영은·장금태·안득수·장현자·박혜차·정진훈
 5. 전동 성령기도회: 매주(목)
 6. 클로리아 성가대 성모승천 성가 연습중 (기념 미사의 밤)
 7. 업종별 신자명부 작성중: 사무실에 신고하여 주세요
 8. 주일학교 교리교사 단합대회: 8일~11일
 9. 차주전례
 아침미사: 해설-이상태, 독서-①최병래 ②이주영
 공식미사: 해설-이준영, 독서-①이영래 ②김홍기
 저녁미사: 해설-최원일, 독서-①최종만 ②이훈
- 지난주 봉헌금: 713,160원 교무금: 672,500원

(호자동)

신부 75-3841 주임 신부 박 중 신
 수녀 2-4804 사도 회장 이 교 성
 사무 2-0915

1. 본당신부 출국: 11일, 국제회의 참석차(약 4주간)
 2. 성경학교·수련회·산간학교: 사도회·자모회·클라라회 및 수고하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3. 영세식: 오늘 10시30분
 4. 사목회의: 오늘 공식미사 후
 5. 사제관 애어른 설치: 익명의 기증자
- 지난주 봉헌금: 284,320원 교무금: 449,000원